

■ 피정복민의 시각 - 멕시코 정복에 대한 보고서¹⁾

미겔 레온 포르티야(Miguel León Portilla)

제7장 스페인인들이 테스코코에서 환대받다

개요

스페인인들은 틀랄마날코의 길을 따라 산악 지역에서 내려가 테노치티틀란을 향해 밀어닥쳤다. 그들이 산을 내려온 직후 테스코코의 익스틀리소치틀 왕자(테스코코 주군인 카카마의 동생)는 코르테스를 평화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도시를 나섰다.

『라미레스 사본』(Codex Ramírez)은 이 일화에 얽힌 이야기 몇 토막을 스페인어로 담고 있는데, 어느 원주민 노인의 이야기로 원래의 나와틀어 자료는 망실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아스텍 지배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테스코코 인들을 정복자들과 연합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익스틀리소치틀 왕자였다고 한다. 또한 그 이야기는 당시 코르테스가 테스코코 시를 방문했다고 전하는데, 그런 언급은 다른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베르날 디

1) 이 글은 Miguel León Portilla ed. (2006), *The Broken Spears: The Aztec Account of the Conquest of Mexico*, Boston: Beacon Press, 7-8 장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영어 번역본으로, 스페인어 원제는 *Visión de los vencidos: Relaciones indígenas de la Conquista*(1959)으로 정복 전후에 멕시코 원주민들이 남긴 기록을 레온 포르티야가 편찬한 것이다.

아스 델 카스티요, 사아군의 정보 제공자, 페르난도 데 알바 익스틀리소치틀 등은 그 방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스페인인들이 익스타팔라파로 또 거기서 아스텍 수도로 향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라미레스 사본』은 흥미롭고 중요한 일화 몇 편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왕자가 어머니 야코친에게 개종을 권했을 때 야코친이 보여 주는 반응이 특히 그렇다. 또한 스페인인들이 테스코코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목테수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묘사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귀족 회의 소집을 명해 낯선 자들이 테노츠티틀란에 도착하면 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쫓아야 하는지 논의했다. 쿠이틀라왁의 암울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그들을 평화롭게 영접하기로 마음먹었다.

테스코코를 향한 진군

스페인인들은 산정에서 내려다보고는 몹시 기뻐했다. 아주 많은 촌락과 도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틀락스칼라로 되돌아가서 자신들의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코르테스는 그들을 독려했다. 이로써 테스코코를 향한 진군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산중에서 보낸 다음 그 이튿날 다시 길을 이었다. 몇 킬로미터 가량을 전진한 그들은 상당수의 추종자들을 대동하고 있던 익스틀리소치틀 그리고 그 형제들과 마주쳤다. 코르테스는 처음에는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과 통역을 통한 끝에 그들이 스페인인들을 친구로 맞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몹시 흐뭇해 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휘

관을 지목하자 익스틀리소치틀이 그에게 다가가 미소와 절로 인사를 건넸고, 이에 코르테스는 스페인 식으로 응대했다. 왕자는 그렇게 하얀 피부에다 수염이 있으며 그렇게 대단한 배짱에다 위엄을 갖춘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고, 코르테스 역시 왕자와 그 형제들, 특히 어느 스페인인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얀 테코콜친에게 놀랐다.

마침내 익스틀리소치틀은 통역자인 말린체와 아길라르를 통해 자신과 휘하의 사람들이 코르테스를 접대할 테니 함께 테스코코로 가자고 청했다. 코르테스는 왕자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테스코코에 도착한 말린체와 스페인인들



다른 원주민 부족과 연합한 코르테스

도시로 들어가다

익스틀리소치틀의 요청으로 코르테스와 그 일행은 테스코코로부터 미리 내다 두었던 선물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 그들은 새 친구들과 함께 도시로 향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환영했다. 원주민들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태양의 아들들, 즉 자신들의 신들로 경배했는데, 자신들의 왕 네사왈필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던 바로 그 시간이 온 것으로 믿었다. 스페인인들은 도시로 들어가 왕궁에서 묵었다.

이 일에 대한 보고가 왕 목테수마에게 전해졌고, 그는 자신의 조카가 코르테스에게 베푼 환대를 만족스럽게 여겼다. 또한 그는 코와마코친과 익스틀리소치틀이 그 지휘관에게 한 말에도 만족했

다. 그는 국경 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수비대를 익스틀리소치틀이 불러들였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이 정한 운명은 그와는 달랐다.

코르테스는 익스틀리소치틀과 그 형제들이 보여 준 관심을 아주 고맙게 여겼다. 그는 통역인 아길라르의 도움을 받아 신의 법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했다. 그 형제들과 다른 일군의 귀족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는 자신을 머나 먼 그곳으로 보낸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황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지창조와 타락의 신비, 삼위일체와 육화의 신비,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설명했다. 그 다음 그는 십자가를 꺼내 치켜들었다.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꿇었고 익스틀리소치틀과 다른 귀족들도 그들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코르테스는 세례의 신비도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신의 은총 안에 있지 않음에 대해 카를로스 황제가 얼마나 애석하게 생각하는지 또 황제가 오로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르테스 자신을 그들 사이로 보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함으로써 가르침을 마무리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황제의 백성이 되기를 권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교황의 뜻이기 때문이며, 자신은 교황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익스틀리소치틀 기독교인이 되다

코르테스가 그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자, 익스틀리소치틀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와 그의 형제들은 그 신비를 아주 잘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밝아진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리며

자신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황제를 섬기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그 형제들이 십자가를 승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달라고 했으며, 그들의 신심을 본 스페인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 왕자들은 세례를 청했다. 코르테스 그리고 그와 동행하고 있던 사제는 그들이 먼저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만 한다고 했고, 그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파견될 것이라고 했다. 익스틀리소치틀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즉시 종부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다. 이제 자신은 일체의 우상승배를 증오하고 참된 믿음의 신비를 외경하기 때문이라고 그 까닭을 밝혔다.

일부 스페인인들이 반대했지만 코르테스는 익스틀리소치틀이 즉시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코르테스 자신이 대부 역할을 했고 왕자에게는 에르난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그것이 코르테스의 후원자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 코와마코친에게는 페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코르테스의 대부가 페드로 데 알바라도였기 때문이다. 테코콜친에게는 페르난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으며 그 역시 코르테스가 후견인이 되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나머지 왕자들의 대부가 되었으며, 세례식은 지극히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만일 가능하기만 했더라면 바로 그날 2만 명이상이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 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종부성사를 받았다.

야코친의 반응

익스틀리소치틀은 어머니 야코친에게로 갔다. 지난 일을 들려주고 어머니 역시 세례를 받도록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그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야만인들, 즉 정복자들에게 흘려 그렇게 쉽사리 설득당한 것을 보니 제정신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돈 에르난도는 그녀가 자기 어머니만 아니었더라면 그 목을 쳐버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설령 어머니 본인 뜻에 반하더라도, 어머니 역시 종부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혼의 삶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야코친은 아들에게 잠시 혼자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이 어머니인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이튿날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왕궁을 나가서 어머니의 방에 불을 지르도록 명했다(그가 우상의 신전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있기는 하다).

마침내 어머니가 나와서는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녀는 코르테스에게 가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코르테스 자신이 그녀의 대부였고, 그녀에게는 도냐 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녀가 기독교인이 된 테스코코 최초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네 딸, 즉 공주들도 다른 많은 여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보낸 사나흘 동안 스페인인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내렸다.

목테수마의 마지막 결정

테스코코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된 목테수마는 조카 카카마와 그의 형제 쿠이틀라와 그리고 다른 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긴 논의를 하자고 했다. 기독교인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환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만약 환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쿠이틀라왁은 절대로 그들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지만, 카카마는 의견을 달리해서 그들이 일단 입구까지 와 있는 이상 그들의 입성을 거부하는 것은 용기 부족을 드러내는 일 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촌 같은 위대한 지배자가 또 다른 대 군주의 사절단을 내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방문자들이 목테수마를 불쾌하게 만들 만한 요구 같은 것을 하면 용감한 전사 집단을 보내 그들의 그 오만방자를 벌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나서기 앞서 목테수마는 조카와 뜻이 같다고 선언했다. 쿠이틀라왁이 그에게 경고했다. “폐하가 그 낯선 자들을 폐하의 집에 들이지 말도록 우리의 신께 기원합니다. 그 자들은 폐하를 폐하의 집에서 내쫓을 것이요 폐하의 권력을 전복시킬 것입니다. 폐하, 잃어버린 후에 되찾고자 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법입니다.” 그로써 자문회의는 끝났다. 다른 귀족들은 다들 몸짓을 통해 그 마지막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표명했다. 하지만 목테수마는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환영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조카 카카마에게 나가서 그들을 만나 보라고 했고, 형제인 쿠이틀라왁을 보내 익스타팔라파에 있는 왕궁에서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

제8장 스페인인들이 테노초티틀란에 도착하다

개요

스페인인들은 아스텍 수도를 향한 진군을 계속했고, 틀라스칼라 지역에서 데리고 온 모든 동맹세력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번

장에 실린 내용은 사아군의 정보제공자에 의해 텍스트에 수록된 이야기를 옮겨 온 것이다. 이야기는 군대의 여러 소부대들이 등장하는 순서에 관한 묘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남쪽에서 그 섬 도시에 접근했는데, 익스타팔파 길을 따라 1519년 11월 8일 솔로코(후에 산 안톤으로 불렸고 오늘날 산 안토니오 아밋 거리의 일부분에 해당)에 도착했다. 정확한 날짜는 페르난도 데 알바 익스틸소치틀의 『보고서 13』 (XIII relación)에 기록되어 있다.

마침내 코르테스와 목테수마가 이칠란의 바로 그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대화로 상대에게 인사를 했다. 그 인사는 사아군의 정보 제공자에 의해 세심하게 보존되었다. 이어서 텍스트는 정복자들의 테노츠티틀란 체류와 보고(寶庫)에 소장된 금붙이에 대한 그들의 탐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목테수마가 코르테스를 만나러 나가다

스페인인들은 테노츠티틀란 입구 근처의 솔로코에 도착했다. 그것이 진군의 끝이었다. 그들이 목표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목테수마는 스페인인들을 마중하러 나가기 위해서 성장을 차려 입었다. 다른 왕자들 역시 몸을 치장했고 귀족들과 그 지휘관들, 전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리고 모두 함께 그 이방인들을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방패 모양의 꽃, 심장 모양의 꽃 등 아름다운 꽃들을 가득 담은 쟁반을 가져갔다. 가운데에는 최고의 꽃이 놓여 있었다.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꽃과 은은한 향이 나는 노란 꽃이었다. 그들은 또한 꽃으로 만든 화환, 황금으로 만든 가슴 장신구와 목 휘장, 값진 보석이 달린 목 휘장, 가슴 장식 모양의 목도리도 가

져갔다.

그렇게 목테수마는 그들을 맞으러 이칠란으로 나갔다. 그는 그 지휘관과 대장들, 즉 전쟁을 하러 온 자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선물 공세를 벌였다. 그들의 목 언저리를 꽃으로 장식해 주면서 목에는 꽃목걸이를 걸어 주었고, 가슴을 장식할 꽃띠를 건넸으며, 머리에는 화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 목걸이를 걸어 주고 온갖 환영의 선물을 전했다.

목테수마와 코르테스의 대화

목테수마가 각자에게 목걸이를 걸어 주고 나자, 코르테스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인가? 그대가 바로 그 인사인가? 그대가 목테수마인가?”

그러자 왕이 말했다. “네, 바로 제가 목테수마이옵니다.” 그는 코르테스를 환영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말을 건넸다. “우리의 주인님이시여, 피곤하실 것이옵니다. 오시느라 지치셨겠지만 이제 이 땅에 도착하셨나이다. 당신의 도시 멕시코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다 오셨으니, 여기 당신의 옥좌 그 차양 아래에 앉으시옵소서.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옥좌를 간직하고 보살피며 당신을 대신했던 왕들은 이미 떠났나이다. 이츠코아틀, 선조 목테수마, 악사야카틀, 티속, 아위초틀,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잠시 멕시코 시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칼과 그들의 방패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감싸 주었나이다. 그 왕들은 자신들이 남겨 두고 떠난 후손들의 운명,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그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꿈이 아니옵니다. 저는 몽유병자도 아니고 꿈속에서 당신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옵니다. 드디어 저는 당신을 뵈고 있나이다. 정말로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나이다. 저는 닷새 동안, 열흘 동안 번민하며 제 시선을 ‘미지의 장소’에 고정시켜 왔나이다. 이제 당신께서는 구름 속에서, 안개 속에서 나오셔서 당신의 옥좌에 앉으려 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도시를 다스렸던 왕들의 예언이었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에게로 귀환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나이다. 이제 편히 쉬옵시고 당신의 궁전을 차지하십시오. 저의 주인님, 당신의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목테수마가 말을 마치자, 지휘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린체가 그의 말을 스페인어로 통역했다. 코르테스가 기묘하고 사나운 말투로 대답했는데, 먼저 말린체에게 말했다.

“목테수마에게 우리는 그의 친구라고 전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긴 시간 그를 만나고 싶어해 왔고, 드디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를 아주 사랑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다고 그에게 전하라.”

그 다음 그는 목테수마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구로서 멕시코에 있는 그대 집에 온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린체가 그 말을 통역했고 스페인인들은 목테수마의 손을 잡고 그의 등을 도닥거리며 그에 대한 호의를 표했다.

스페인인들과 현지 귀족들의 태도

스페인인들은 눈에 띄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말에서 내렸다가 다시 말에 탔다가 또 다시 말에서 내리며 관심 있는 것이 하나 놓치려 하지 않았다.

목테수마를 수행하고 있던 대장들은 테스코코의 왕 카카마, 틀라코판의 왕 테틀레판케찰친, 틀라텔롤코의 주군이자 틀라코츠칼카틀인²⁾ 이츠크와우친, 틀라텔롤코의 목테수마 보물 담당관 토판테목이었다. 이들 대장 넷이 도열해 있었다.

다른 왕자들은 아틀릭스카친,³⁾ 틀라코츠칼카틀인 테페오아친, 케찰라차친,⁴⁾ 토토모친, 에카테우파틸친, 쿠압피아친이었다.

목테수마가 투옥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숨어 버렸다. 그들은 달아나 몸을 숨겼으며 그를 배신하고 버렸던 것이다!

스페인인들이 도시를 장악하다

스페인인들이 왕궁에 들어가자 그들은 목테수마를 경계하며 그를 자신들의 감시하에 두었다.

그리고 스페인인들이 포 하나를 발사했는데, 그 일이 도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무턱대고 도망쳤다. 마치 쫓기기라도 하는 양 달아났다. 그들은 마치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버섯을 먹기라도 한 듯했고 또 무시무시한 유령이라도 본 듯했다. 다들 공포에 휩싸였으며 얼이 빠진 듯했다. 그리고 밤이 내리자 공포는 도시 전역으로 번져 갔다. 그 두

2) 화살의 집 대장

3) 4명의 포로를 잡은 대장에게 붙이는 칭호

4) 사제들이 특정 의식을 행하기 전에 몸에 바르는 염료를 책임지는 대장

려움은 그들을 잡 못 이루게 했다.

아침이 되자, 스페인인들은 토르티야, 구운 닭고기, 달걀, 신선한 물, 딸감, 숯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보급품을 목테수마에게 말했다. 또한 크고 깨끗한 조리 냄비, 물 항아리, 주전자, 접시와 여타 도자기 등도 요구했다. 목테수마는 그것을 가져다주도록 명했다. 그 명령을 받은 대장들은 왕에게 분노하며 더 이상 존경도 공경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음식, 음료와 물, 말 먹일 여물 등 스페인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제공했다.

스페인인들이 탐욕을 드러내다

왕궁에 거처를 정한 스페인인들은 목테수마에게 그 도시의 재화와 비축 물품 그리고 전사들의 기장과 방패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그에게 꼼꼼하게 물은 다음 금을 요구했다.

목테수마는 그들을 금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그들은 그를 에워싸고 무기를 가까이 들이댔다. 그는 가운데서 걸었으며, 스페인인들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테우칼코라고 불리는 보고에 그들이 도착하자, 금붙이와 깃털 등의 재물이 그들 앞으로 내어져 왔다. 케찰 새의 깃털로 된 장신구, 호화롭게 만들어진 방패, 황금 원반, 우상의 목 장식물, 황금 코 덮개, 황금으로 된 발과 팔 보호대, 왕관 등이었다.

스페인인들은 곧바로 황금 방패와 기장에서 깃털을 뽑아 버렸다. 그들은 모든 금붙이를 한데 모아 커다란 더미를 만든 다음, 나머지 모든 것들에는 불을 질러 버렸는데, 그 가치조차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금을 녹여 금괴로 만들었다. 진귀한 벽옥마저도 가장 훌륭한 것만 골라서 가졌을 뿐이고, 나머지는 틀락스칼라

인들이 챙겼다. 스페인인들은 보고 전체를 살살이 뒤지며 의심하고 다투었고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물건을 약탈했다.

목테수마 보물의 강탈

그 다음 그들은 토토칼코라는 장소(새들의 왕궁에 있는 장소, 왕궁에 붙어 있는 동물원)에 있는 목테수마의 창고로 갔다. 그곳은 그의 개인 보물이 보관된 장소였다. 스페인인들은 새끼 짐승들 마냥 히죽거리며 기쁨에 겨워 서로의 몸을 토닥거렸다.

보물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마치 낙원에 이른 것 같았다. 그들은 구석구석을 뒤지며 모든 것을 탐했다. 그들은 자신들 탐욕의 노예였다. 목테수마의 모든 소유물이 반출되었다. 멋진 팔보호대, 큰 보석이 박힌 목 장식물, 작은 황금 종이 달린 발찌, 왕관을 비롯한 왕의 모든 장신구 등은 모두 왕 개인 소유로서 오로지 왕만을 위해 보관된 것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그 보물들이 자신들의 것인 양, 그 노략질이 단순한 한바탕 횡재인 양 약탈했다. 황금을 다 챙기고 난 그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마당 한 가운데에 쌓았다.

말린체가 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녀는 왕궁 지붕으로 올라가 고함을 질렀다.

“멕시코 인들이여, 앞으로 나서시오! 스페인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신선한 물을 가져다 주시오. 그들은 지쳐 있고 배고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해서 실신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왜 앞으로 나서지들 않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들?”

멕시코 인들은 너무 놀라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

에 짓눌려 있어서 감히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페인인들이 마치 들짐승이라도 된다는 듯, 마치 그 시간이 연중 가장 어두운 밤의 한밤중이라도 된다는 듯 움찔거렸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페인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그들은 스페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든지 가져다주었지만, 그렇게 하는 내내 공포로 전율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스페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건네고는 뒤돌아서 서둘러 물러났다.□

[번역/요약: 강성식]

강성식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시간강사
